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진안군,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

48억원 투입 군도·농어촌도로 총 8개소 확포장 진행

진안군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건설 및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량은 총사업비 48억원을 들여 군도 확포장 사업 6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2개소의 도로망 확충이다.

주요 사업구간은 선형 불량으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마령면 계남마을에서 방화마을을 구간 선형개량(8억원 투입)과 백운면 은반마을에서 상백마을로 이어지는 도로 미개설 노선 개설공사(12억원 투입)다.

이번 사업은 군도를 확·포장해 상급도로와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에게 더욱더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주천면 용덕리 대촌, 도촌, 산

제마을 진입로에 대하여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추후 진입로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진안군은 11억원을 들여 기존도로의 도로포장 보수, 배수시설 정비, 표지판 및 안전시설 등 소규모 도로시설물 정비와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고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은 “도로망 확충사업이 진행되면 교통편의와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기공승낙 및 토지보상 협의 등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전한 공사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워크숍 가져... 지원 사업 설명·특강 등 진행

무주군은 17일 최북미술관 다목적강당에서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무주군이 주최하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 사단법인 전라북도 농공단지협의회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전라북도 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 및 무주와 무주제2농공단지, 안성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의 대표와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후원 기관 및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라북도 우수기업인 (주)유니온시티 임동욱 대표의 사례 발표를 청취했다. 또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영무 기획경영본부장이 진행하는 기업마인드 합의를 위한 특강을 들은 후 기업경영 노하우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서



무주군은 17일 최북미술관 다목적강당에서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워크숍을 진행했다.

로의 소통창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련된 이 자리가 기업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과 신뢰를 키우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에는 현재 무주읍과 안성면 일원에 3개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유제품과 철강, 천마식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20개사가 입주해 있다.

무주군은 올해 관내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등에 총 2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국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 무주에 모였다

7000여명 선수 참가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가 18일까지 무주군 안성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지역 간 동호인들의 교류와 화합 기반을 만들기 위해 종목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와 무주군을 주최하고 전라북도그라운드골프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북 지역 8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에서 42개 팀 7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이틀간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를 펼친다.

첫 날 열린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최일성 회장과 전북그라운드골프협회 박춘기 회장, 무주그라운드골프협회 박천석 회장과 선수 등 8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체육회 송재호 회장이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무주그라운드골프협회 박천석 회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가 18일까지 무주군 안성체육공원에서 열린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무주대회를 통해 그라운드골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운동이자 가족형 레포츠라는 것이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며 “그라운드골프는 최고의 종목으로 만들려는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무주군도 일조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무주는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태권도 성지이자 전국 10대 관광 매력도시, 다양한 생활스포츠 기반을 갖춘 고장”이라며 “언제라도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여름철 극한 강우 대비 합동훈련 실시

장수군은 지난 16일 장수군청 지하 주차장에서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 강우 대비 현장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라북도청, 장수군,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7733부대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름철 극한 강우 대비 훈련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저지대 및 지하 침수 상황을 가상해 유관 기관과 함께 침수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조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저지대 및 지하가 침수될 경우 전라북도청은 상황을 전파하고, 장수군은 주민대피, 장수



경찰서는 교통통제, 장수소방서와 군부대는 인명구조 등을 맡게 된다.

박창을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침수 대비 합동훈련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기관별 협력체계를 점검해 재난상황 발생 시 이번 훈련 경험이 토대가 됐으면 한다”며 “급년 여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컨설팅 지원

진안군은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컨설팅을 실시한다.

17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 참여 청년농업인 10명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자는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사업 대상자 및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본교육에서는 참석자들의 개개인별 영농 현황 분석을 위한 사전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개인별 농가에서 농가 특성에 맞춰 9회에 걸쳐 현장 컨

설팅을 진행하며 경영개선방향을 지도할 계획이다.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작년까지 3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올해는 농가 실정에 맞는 단계별 전문적인 컨설팅을 위해 준비를 추가 확보해 횡수를 대폭 증대했다.

군은 1~3차 컨설팅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경영체 진단과 농장 현황분석을 토대로 방향성을 결정하고, 4~9차에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영농기술과 경영기술을 접목한 미래의 농장 설계에 중점을 뒀다.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의암공원·누리파크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

장수군은 지난 16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의암공원, 누리파크 및 동촌리 고분군 일원을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관련 국·과장 등 군 관계자 25명과 용역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암호 구역 정비 △누리파크 야생화 정원 △명품 숲 조성 △의인 역사공원 △고분군 정비 △문화체육시설 등 구역별 경관 조성 및 체험시설 계획을 수립했다.

용역사는 “장수군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산림관광 및 레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좋은 조건을 살린 대표 관광지가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100만 관광객 유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자생센터, 국제행사 성공 개최 위한 자원봉사

장수자생센터(이사장 육종순)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활동을 운영했다.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국제 마스터스대회협회에서 승인하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체육대회로 연령·성별·국가 스포츠 지원에 상관없이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유치되어 14개 시·군 경기장에서 2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수군에는 시범종목인 게이틀볼 경기가 진행되어 384명(국내) 선수와 일본(10명) 선수가 참여하여 3일간 진행된 경기 운영에서 자원봉사자 30여명과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협력하여 교통정리, 환경정화, 참여 선수단 간식포장, 통역지원 등을 통해 게이틀볼 경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친절과 배려로 선수단 및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힘썼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